

조선시대부터 六誨 지켜 온 崔씨집안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욕심 버리고 타인 존중하라)

Q 르포 | 중요민속문화재 제27호 ‘경주 최부자택’

1971년 경주 교동 고택 문화재 지정 이웃과 함께 했던 여민 정신 ‘주목’ 상해 임시정부의 자금 공급처 역할

경주시 교동 ‘경주 최부자택’이 중요민속문화재 제27호 지정 50주년을 맞았다. 1971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경주 최부자택은 1970년 있었던 화재로 지금은 절반 정도만 남았지만 18세기 중엽에 2000평 부지와 1만 평 후원의 99칸 대저택으로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해방 후에도 일가가 거주한 이곳에는 그간 집을 오고간 수많은 이들에 대한 자료와 함께 가족들이 고치며 살았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러나 최부자택이 특별한 이유는 대를 이어 이웃과 함께 했던 여민(與民)정신 때문이다. 지금도 최씨 일가는 고택 옆에 경주최부자아카데미를 열어 가문이 이어온 정신을 알리고 있다.

최부자택 공간 앞에는 과객을 위한 쌀통이 하나 있다. 쌀통에는 위로 난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양손을 넣어 쌀을

양껏 꺼내기엔 조금 작다.

최창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상임이사는 “지나는 과객을 위한 쌀통인데, 여기에서 쌀을 꺼내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했다”며 “자신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꺼낼 수 있는 크기인 이유는 욕심을 경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도 남을 위하여는 마음은 최씨 일가가 대를 이어 지킨 육훈에 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1년에 1만 섬 이상 재산을 모으지 말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집에 온 손님을 융숭히 대접하라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이 없게 하라 ▲가문에 시집은 며느리는 3년 무명옷을 입으라 등이다.

권력과 재산을 탐하지 않고 주변 백성을 살리는 내용이다. 11대조 최국선(1631~1681)부터 큰 부자가 된 일가는 육훈을 철저히 지켰다.

마지막 ‘최부자’였던 최준(1884~1970)도 가문의 가르침을 지켰다. 최준은 이사로 있었던 백산무역회사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의 가장 큰 자금 공급처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50주년을 맞은 ‘경주 최부자택’의 안채. 18세기 중엽에 지었지만 해방 후에도 일가가 실제로 거주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조금씩 손본 흔적이 있다. 왼쪽에 솟은 굴뚝은 일제강점기 당시 지은 것이다. /김서현기자

역할을 했다. 그의 동생 최완은 최준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임시정부 재정위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최씨 일가의 재산을 통째로 담보로 걸고 거액을 대출받아 독립자금으로 냈다. 2019년 창고에서 일제강점기 오간 발견된 수만 건의 문서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 상임이사는 “당시에는 조선의 거부들이 독립운동을 지원할까봐 일제가 재산이 드나드는 것도 감시했다고 한다. 수많은 친일파들의 명함과 독립운동가들의 명함이 동시에 발견된 게 그래서였다. 이런 상황에도 집안 어른들은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

다. 수많은 지식인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고 경주 월성초등학교의 전신인 월성여학교를 세웠으며 지역 유지들과 함께 대구대학교를 세웠다. 비록 1961년 박정희 정권에 대구대학교와 일가의 모든 재산이 뺏겨 지금의 영남대가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준은 그저 영남대가 잘 되기만을 바란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일가는 경주최부자아카데미를 통해 산처럼 쌓인 고문서들의 번역을 이어가며 경주 최씨 일가가 실천했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코로나19가 닥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을 받기 어려워졌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라면 종종 연수, 워크숍 등을 받고 있다. 문화재인 경주 최부자택은 언제든 관람할 수 있다.

경주향교 옆에 자리한 경주 최부자택은 향교의 지붕보다 1m 낮게 지어졌다. 처음부터 땅을 파서 낮춰지었다.

최 상임이사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감시 속에서 고초를 겪기도 하면서도 어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주(경북)=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수소차 불모지’ 경북 지원금 전국 0.03% 수준 전남도, 지역문화재 활용 ‘인문학 관광’

경북 수소차 국고보조금 5대 불과 수소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1곳 뿐

탄소중립 시대를 맞고 있지만 경북 지역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는 ‘불모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수소차 구매 국고보조금 지원은 1만6001대,

3757억32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4대, 2018년 672대, 2019년 4155대, 2020년 5801대에 이어 올해도 8월 말까지 5309대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 등 최근 5년간 수소차 구매 국고보조금 지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중 경북지역 국고보조금 지원은 5대, 1억13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지원규모의 0.03%에 불과한 수치다.

더욱이 전국 112개 수소충전소 중 경

북지역 충전소는 단 1곳 뿐이다. 이마저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있어 사실상 경북도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북도는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조성 등을 토대로 세계 수소경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수소경제 정착을 위해 지역내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7개 분야 53억 확보

전남도는 문화재청의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서 7개 분야 53억원을 확보해 전남을 ‘인문학의 성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분야별로 생생문화재 17건, 향교서원 문화재 8건, 전통산사 문화재 6건, 문화재 야행사업 3건, 세계유산 활용사업 3건, 정보통신기술(ICT) 실감콘텐츠 활용사업 1건 등이 선정됐다.

생생문화재는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 화해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대

표적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도록 기획한 프로그램형 사업이다.

향교서원 문화재는 향교와 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9년째 선정된 담양 ‘창평향교 은행나무 선비학교’, 구례 ‘Happy 구례향교’,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성 필암서원에서 진행되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이 포함됐다.

전통산사 문화재는 고품격 산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례 화엄사, 나주 불회사, 순천 송광사, 화순 운주사 등 6개 산사에서 추진한다.

문화재 야행은 목포, 여수, 순천, 3개 시·군이 선정됐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전남 지자체 7곳, 독립유공 보훈수당 전무

지자체별 지급액 달라

광주와 달리 전남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강진군,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등 기초자치단체 7곳은 독립유공자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전국 지자체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지원현황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역단위에서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매달 10만원씩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광역단위 지급 없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랐다. 기초지자체 22곳 중 여수시와 광양시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해 가장 많았다. 장흥군과 신안군, 보성군은 월 3만원으로 가장 적게 지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전라남도향일독립운동기념탑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강진군,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등 기초지자체 7곳은 아예 보훈수당 지원금이 없었다.

전남도를 포함해 보훈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총 9곳이다.

기초지자체 중 지급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성남시로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최저 지급액은 서울 노원구로 월 1만원이다.

신안군

치유의숲 조성 사업비 확보

신안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시행하는 치유의숲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신안 임자도 치유의숲 조성사업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산림치유 기반을 확충하고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70억원이다.

대상지는 지도~임자 간 연륙연도교가 급년 개통하여 외부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임자도’이다.

숲과 바다의 음이온 피톤치드 천일염 해수 등 풍부한 치유인자를 활용하여 산림생태 휴양문화와 관광인프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자도 치유의숲은 해양형 치유의숲으로 푸른 바다와 녹색의 숲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산책이 가능한 치유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안동대, 국립안동대학교로 새출발

교명변경 추진계획 확정

안동대학교가 ‘국립안동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한다.

12일 안동대에 따르면 최근 대학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총동문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명변경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교명 변경 추진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국립대학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동대는 대학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바탕으로 학내심의 절차 등을 거쳐 교육부에 교명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안동(경북)=김태우 기자